



# 코로나19에 '1m 모자' 쓰고 수업...중학교들 단계적 개학

기사입력 2020-04-27 14:54 최종수정 2020-04-28 18:27

입실전 체온측정·교대로 점심식사·교내 마스크 착용

'소림무술' 시범에 '1m 모자'까지...중국의 개학날 '진풍경'  
연합뉴스 272 1



00:00 03:08

자동



27일 항저우의 한 초등학교에서 '1m 모자'를 쓴 학생들 [사진 중국중앙방송.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의 한 초등학교에서 27일 학생

들이 '1m 모자'를 하고 수업받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저학년 개학일인 이날 학생들은 양옆으로 모자챙이 길게 달린 모자를 쓰고 수업받았다. 중국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신하들이 귓속말하지 못 하게 하려고 만들었던 모자를 연상케 한다.

'1m 모자'는 아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1m 안전거리 유지'를 명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자는 개학 전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다.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이날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廣東)성이 단계적 개학에 들어갔다.

신경보와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의 245개 학교에서 5만명에 가까운 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전후부터 스마트폰의 건강 코드 확인과 체온 측정을 거쳐 교실로 들어갔다.

베이징 101 고등학교는 국기 게양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기수 5명과 교사만 운동장에 있었으며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게양식을 지켜봤다.

둥즈먼(東直門)고등학교에는 고3 8개반 252명의 학생이 있는데 25개 교실에 나눠 수업한다. 학생들은 서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점심 식사도 교대로 한다.



27일 베이징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개학 첫날 등교하고 있다. [사진 신경보,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의 고3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날 베이징 245개 학교의 고3 개학을 맞아 각 학교 부근에는 경찰 5천명이 투입됐다.

베이징에서 중학교 3학년은 다음 달 11일에 개학한다.

이날 상하이와 광둥성은 고3과 중3 학생들이 동시에 개학했다.

상하이는 고2와 중2는 5월 6일에, 중·고교 나머지 학년과 초등학교 고학년은 5월 18일에 각각 개학한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개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광둥성의 초등학교와 중·고교 나머지 학년 학생들은 5월 11일 이후 각지 상황에 따라 개학 일정을 정한다.

ykim@yna.co.kr

-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에서 [구독 클릭]
- ▶[팩트체크] 국제원유가 마이너스면 휘발유 공짜? ▶제보하기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11574354>

---